‘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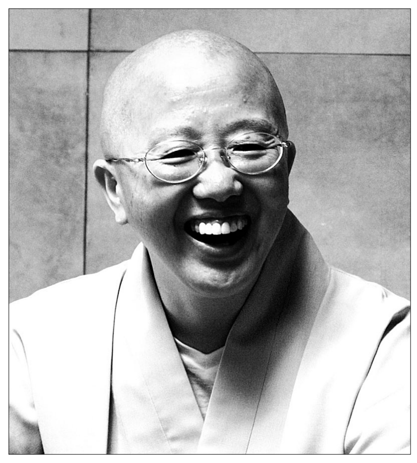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스님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
1만 7천원

〈미술관에 간 붓다〉는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반가사유상〉이나〈서산마애삼존불〉처럼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을 통해 미학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현대불교신문에 2013년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지금까지 서양 미학적 관점서 예술 작품을 분석한 것이 주류였다면, 이 책에서는 배트맨과 사천왕의 공통점서 로댕의〈생각하는 사람〉과 〈반가사유상〉의 차이까지 새로 해석한 불교예술과 미학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와 기독교, 동양과 서양, 회화나 조각은 물론 영화 예술까지 전 장르를 넘나들며 불교예술의 사상적, 문화적,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고담시의 수호자 배트맨과 불교를 지키는 호위무사 사천왕. 이들은 악으로부터 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힘을 사용한다는 점과 완전한 이타적 희생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저자는 설명한다.〈반가사유상〉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비슷한 자세와 유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이 가지는 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말한다.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반가사유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고뇌의 표정도 없고 뒤틀린 자세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양 회화서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무도〉도 죽음을 해골로 의인화해 느닷없이 나타난다. 죄 많은 자들은 겁에 질려 끌려가고 고관대작이나 성직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버티지만 죽음은 끝내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는 전쟁서 이름 없이 죽어갔거나 이승을 떠나고도 선뜻 생을 내려놓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수륙재를 열어 그들을 다음 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한다. 이때 장엄하게 제단을 차리고 대형 걸개그림을 내거는데, 이 그림을〈감로도〉라고 한다. 이 세계에서 죽음은 징벌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들을 대비해 보여 줌으로써 불교미학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이 지닌 강점이다. 저자는 불교예술 작품의 사상적이고 미학적인 근거는 모두 붓다와 그가 깨달은 법에 있다고 설명한다. 배트맨과 사천왕의 ‘분노와 두려움’이 미학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희생으로 타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길 자처했기 때문이다.〈반가사유상〉의 몸은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은 없지만 단순한 곡선만으로 모든 사유가 끊어진 적멸의 고요함을 보여 준다. 〈감로도〉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어느 날 불현 듯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이 삶의 진실임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미지와 실제, 가상과 진상이 교차되는 이야기들을 예술작품에 녹아든 상상력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종교예술 작품들은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지금껏 사랑받아 온 것이라고 강조한다. 호랑이 뼈로 호랑이를 만든 마술사가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인도의 전설과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지 않으면 예술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의식세계를 보여 준다. 가짜 현실이 진짜 현실을 지배하는 일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 옛사람들은 불상을 돌에 새겨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인 힘을 가진 영험한 존재로 생각했다.



불교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말하는 명법 스님

불교예술 통해 새로 읽는 미학 산책
이미지 범람 시대 ‘선적관조’ 제시
150컷 자료사진 이해 쉽게해 줘

저자는 현대인들 역시 대중음악,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컴퓨터 게임 등 또 다른 이미지로 가상과 진상의 경계를 뒤섞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욱 현란한 이미지들로 감각의 황폐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자신이 만든 환영에 먹혀 버린 자는 인도의 마술사가 아니라 현대인들 자신이다.

그렇다면 망가진 감각을 복원하고, 가상과 진상을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물을 소유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불교의 ‘선적인 관조’와 서양 미학에서 일컫는 사적 이익과 무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감성적인 경험, 즉 ‘무관심적 관조’ 사이의 유사성이다. 관조는 자신을 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 사물을 소유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와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아사세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연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부왕의 비밀을 알게 된 왕자 아사세는 원한에 가득 차서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죽이고 어머니 위제희 부인을 유폐시킨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는 못했다. 오이디푸스의 자기 인식은 비극의 출발점이고, 아사세의 자기 인식은 더 많은 증오와 복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는 피폐해진 감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궁전에 유폐된 위제희 부인에게 붓다가 16가지 수행법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저무는 해를 관상하는 ‘일몰관’이다. 빛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현상적인 차별을 드러낸다.

책 곳곳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고려 불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수월관음도〉, 우리 민족의 따뜻한 심성과 해학적인 기질이 돋보이는 운문사 작압전 석조사천왕상, 조선 3대 화가 중 하나인 의겸이 그린 〈선암사서부도전감로도〉, 동아시아 정신세계가 도달한 최고의 단계인 일격의 모습을 보여 주는 나한상 등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홍상현 사진작가는 저자가 세밀하게 설명하는 부분까지 150여 컷에 달하는 사진에 담아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양 집착을 놓는 순간은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강신주 지음 | 동녘 펴냄 | 1만 9500원

〈무문관〉은 1228년에 나온 가장 압축적인 화두 모음집으로, 무문 혜개가 48개의 화두를 선별해 해설을 덧붙인 선불교의 대표적인 교과서격이다. ‘무문관’(無門關)이란 제목은 바로 문이 없는 관문(The Gateless Gate)이라는 의미다. 제목부터가 고난도 화두다. 문이 없는 관문이라니, 그렇다면 이 관문은 과연 문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문이 아닐까? 〈무문관〉에 실린 48개의 화두가 문이 없는 48개의 관문이다.

화두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면, 이는 상식을 넘어서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지점이 바로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로 인문학 관련 저술과 특강을 통해 유명해진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선불교의 핵심 정신이다.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 오직 나이기에 살아 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두란 상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지만,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다. 그리고 자기만의 삶에 이른 그 사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즉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 화두란 다시 말해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하기에 문이 없는 관문, 즉 무문관인 셈이다.

어떤 권위에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문학의 가장 강력한 힘임을 갈파해 온 저자이기에 어쩌면 〈무문관〉과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지도 모른다.

불교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 즉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유체계다. 절에서 만난 스님과 불제자들 사이에 주로 하는 인사중 하나가 바로 “성불하세요.”이다. 이는 부처가 되라는 인사다. 부처님과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라는 것이다.

싯다르타의 마지막 사자후마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주인이 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부처님마저 “마른 똥 막대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선불교의 정신만큼 인간의 자유와 힘을 긍정하는 사유가 있을까. 저자는 무문관을 뚫어 내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고 말이다. 절벽에서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을 것인지, 그 계단과 사다리를 걷어차고 스스로 설 것인지를 말이다.

저자는 나아가 무문관의 48개의 관문에서 어떤 외적 권위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와 함께 자신만 주인공의 삶을 살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 역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문학의 강력한 정신을 발견한다. 바로 선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롭게 만들고 타인도 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향은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세계, 즉 들판에 핀 다양한 꽃들처럼 자기만의 향과 색깔로 살아가는 세계, 바로 화엄세계다. 때문에 자기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깨달음을 돕는 것은 깨달은 자에게도 남겨지는 책임이 된다. 그렇기에 백척간두(百尺竿頭), 즉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힘들게 오른 자도 그 한 발을 떼야 한다고 말하는 선불교의 절절한 외침은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에 다름 아니다.

화두 48개 선별한 ‘무문관’
서양 철학과 맛깔나게 버무려

저자는 〈무문관〉의 48개의 화두를 두고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표현한다. 화두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자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성장이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방향으로 성장, 일반인에서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당혹스러운 48개의 난제들을 통과하며 저자는 우리의 성장을 독려하고 독촉한다.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었지만 슬프게도 힘과 자유를 갖지는 못한, 그래서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싸워 힘과 자유를 얻어내 단 한 번이라도 어른이 되어 살아보자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선불교에서 자유와 사랑의 정신을 읽어 내는 것뿐 아니라 선불교의 강력한 인문정신을 지금 여기의 독자들에게 더 깊숙이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책의 곳곳에 묻어난다.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하며 인간의 힘과 자유를 긍정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선불교의 인문정신을 길어 올린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중흥조 원묘 요세 백련결사 지평 열어

원묘 요세의 백련결사 연구
최동순 지음
정우서적 펴냄
1만5천원

고려 중기 원묘 요세에 의해 결성된 백련결사는 한국 천태종의 사상적 신앙적 시원을 마련해 준다. 그간 보조 지눌의 수선사 결사 연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원묘 요세의 백련결사를 연구하는 이 책은 한국불교 연구사에 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원묘 요세의 사상적 경향은 백련결사서 볼 수 있듯이 종교성과 민중성을 추구한다. 한 때 지눌의 수선사에 참여 했지만 예경과 참회, 준제주 지송의 행법을 통해 근기가 수승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도 불법을 닦는 법을 일러준다. 일반 민중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가르쳤던 신라 원효의 사상과 그 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문에 의하면 원묘 요세 스님은 원효의 증성가를 노래하며, “법계에 있는 몸의 모양은 알기 어렵다. 적막하여 함도 없고 하지 않음도 없다. 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에 왕생하리라.”라고 설명한다.

원묘 요세에 대한 자료는 비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현장을 답사하며 이 책의 논문들을 완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적을 탐방하는 데로 그치지 않고 원묘 요세의 사상적 근원을 천태 지자와 사명 지례에서 확인하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요세의 생애, 요세의 천태사상, 요세 사상의 배경, 백련사 행법과 그 연원, 천태종 사자상승과 요세, 요세 연구의 문제점, 원묘 요세의 비명 역주 등 7장으로 이뤄졌다. 책의 구성과 각 항의 제목만 일별해도 이 책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한국사상사의 한 편을 점유하고 있는 법화 천태사상과 한국불교의 예참의 근원, 준제행법의 변천과정 등을 밝혀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의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원묘의 생애를 탐방해 나가며 완성한 글들이므로 그 면밀성과 구체성이 잘 드러나는데, 남원과 강진지역의 백련결사를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원묘 요세가 ‘서참회’로 불리게 된 데 대해 그간 ‘선가의 폄훼’라는 그간의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 설명해 주고, 그간 요세 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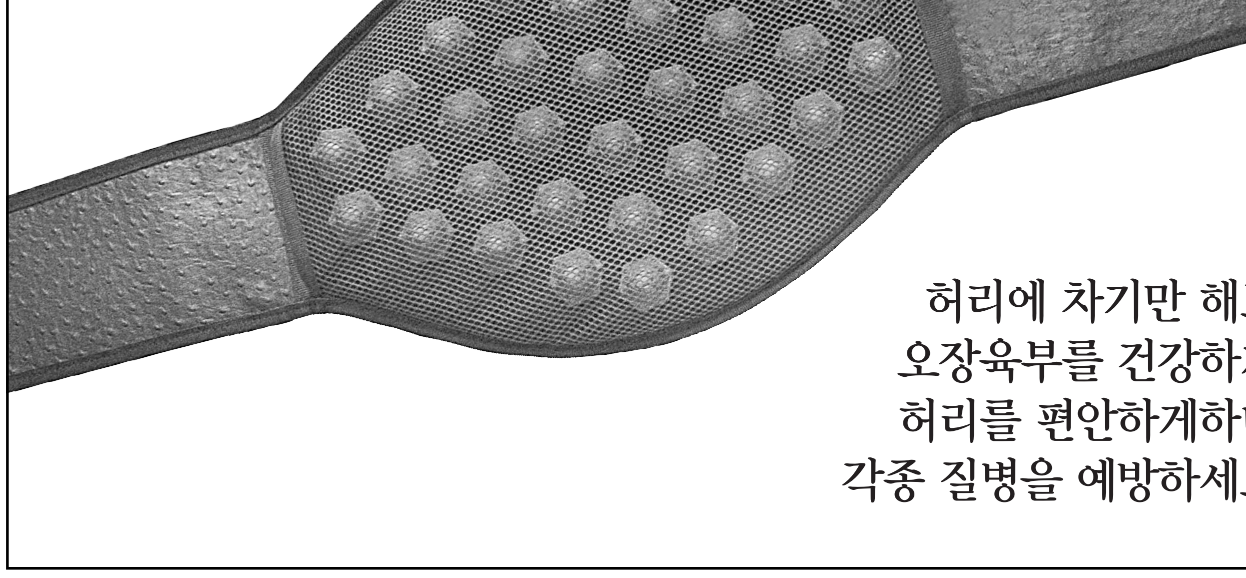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